

창단 20년째 '클래식 음악 대중화'에 힘 쏟는다

CULTURE

2025년 8월 25일 월요일

'꿈꾸는 예술' 2006년 출범 제110회 광장음악회 30일 남구 푸른길공원...모차르트 오페라 등 선사 매달 색다른 주제로 감동 무대·진정한 매력 전파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해 최고의 성악가들이 창단한 클래식 음악공연단체인 (사) '꿈꾸는 예술' (대표 정찬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생활공간의 클래식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가운데 올해 창단 20년째를 맞아 간판 공연의 하나인 '광장음악회' 백열번째 무대를 마련해 특별한 의미를 더한다.

쉽고 즐거운 클래식 음악공연으로 우리의 삶의 공간을 고급스러운 문화생활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주력해온 '꿈꾸는 예술'은 그동안 '함께 만들고, 함께 즐기며, 함께 나누는 문화'를 만들자는 목표로 출발했다. 이탈리아와 독일, 미국 등에서 유학 후 귀국해 광주에서 활동하는 전문 클래식 음악인들에게 상설 무대를 제공하는 동시에 공연과 광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을 선사해 광주의 예술적 토양을 풍부하게 하고, 문화적 풍경에 이바지할 미래지향적 공연 브랜드 구축에 힘을 모았다.

그렇게 해서 무료클래식시와음악회인 '광장음악

회'를 무대에 올렸으며, 문화소외지역의 이웃들을 찾아가서 200회 이상의 공연을 펼쳤다. 여기다 애니메이션으로 해설하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사랑의 묘약', '라보엠'을 제작해 선보이는 등 전국 각지에서 멋진 프로그램 공연을 선사하는데 집중해 왔다.

이와 함께 '테마가 있는 클래식 이야기'도 펼쳐지고 있다.

이런 '꿈꾸는 예술'이 제110회 광장음악회 무대를 30일 오후 6시 남구 푸른길공원에서 갖는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고전시대 오페라 아리아의 밤'이라는 주제로 고전시대 작곡가인 모차르트의 대표작인 오페라 아리아와 도니체티가 작곡한 오페라 '사랑의 묘약'의 아리아와 중창곡 등 2부로 나눠 선보



바리톤 정찬경 대표



클래식 음악공연단체인 (사) '꿈꾸는 예술'이 올해 창단 20년째를 맞아 제110회 광장음악회를 30일 오후 6시 남구 푸른길공원에서 갖는다. 사진은 2022년 7월 30일 열린 '제100회 광장음악회' 장면.

이며, 바리톤 정찬경의 해설로 진행된다.

제1부 모차르트 오페라에서는 소프라노 아리아를 들려줄 김수민 (호남신학대 객원교수) 씨가 '나는 느껴요' (Ach ich fuhl's),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 '빛나는 세라핌' (Let the bright seraphims), 헨델의 오페라 '삼손'을, 바리톤 아리아를 들려줄 이하석씨가 '이제는 날지 못하리' (non piu an drai)와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여성 이중창으로 함께 할 신은선·김수민씨가 '편지

이중창' (Sull'aria)과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각각 무대에 올린다.

또 2부 도니체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에서는 네모리노 아리아를 주도할 나영오씨가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가!' (Quanto e bella, quanto e cara!)를, 아디나 아리아를 선사할 신은선씨가 '무정한 이종데' (Della crudele Isotta)를, 벨코레 아리아를 맡을 이하석씨가 '그 옛날 파리스처럼' (Come Paride vezzoso)을, 이중창에서 함께 할

신은선·나영오씨가 '산들바람에게 물으면' (chiedi all'aura luinghiera)을 각각 들려준다.

이외에 돌카마라 아리아를 들려줄 김일동씨가 '여러분, 들어보세요' (Udite, udite, o rustici)를, 남성 이중창을 함께 할 나영오·김일동씨가 '감사하오' (voglio dire)를, 삼중창에 동참할 신은선·나영오·김일동씨가 '사랑과 전쟁 속에서' (inguerra ed inamor)를, 이중창을 함께 할 나영오·이하석씨가 '20스쿠디' (Venti scudi)를, 네모리노 아리아를 책임질 나영오씨가 '남달라 흘리는 눈물' (Una furtiva lagrima)을, 아디나 아리아를 들려줄 신은선 (전문 연주자로 활동) 씨가 '나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Prendi, per me sei libero)를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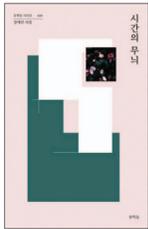
피날레는 다함께 무대에 올라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Ei correge ogni difetto)를 열창하는 것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정찬경 대표는 창립 20년을 맞는 광장음악회에 대해 "광장음악회"는 모든 계층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광장으로 찾아가 공연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공연은 극장 수준의 무대와 음향, 의상으로 준비돼 장소적, 시간적, 금전적 제약이 있는 시민들에게도 힐링이 되는 친근한 공연 환경을 제공한다"면서 "매달 색다른 주제와 다양한 형식의 공연을 통해 친밀하고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하며, 클래식 음악의 진정한 매력을 전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오랜 세월 응시 '화해와 포용의 무늬' 발현

장애선, 등단 27년 만에 첫 시집 '시간의 무늬' "응골찬 삶의 순정...언제나 뜨거운 가슴 지향"



전남 강진 출생 장애선 시인이 등단 27년 만에 첫 시집 '시간의 무늬' (문학들 7)를 펴냈다.

이번 첫 시집은 시간의 흔적들이 새겨진 일상들을 침잠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시인 역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뤄져 져버려져 온 일상의 굴레에 순응해서만은 어렵다는 것을 인지한다. 그래서 총각을 다루는 일상에서 잠시 한 호흡을 갈무리하려 한다.

특히 시인은 오랜 세월 사람과 삶을 경험하고 응시하면서 반복과 갈등보다는 화해와 포용의 무늬를 발견하려 한다. 그의 시들은 모두 표제어처럼 시간의 무늬가 새겨져 있다.

시 '간고등어 한 손'에서 '갈매빛 등매기 물빛으로 치장하여/바닷새 입질에 온전히 제 살점 아껴/짜지도 심검지도 않겠/쫄쫄 고소한 간이 배고/

한 눈이 다른 한 눈을 꺼 안고 누울 때/비로소 한 손이 되는 간고등어'라고 노래한다.

이 시를 보면 그의 시적 여조가 잔잔하고 섬세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그의 성품과 무관하지 않았지만 시간의 거리가 작용하기 때문인 듯하다. 또 '등나무를 보며'라는 시에서 '기둥을 감아 오르는 등나무'는 '낮술에 취해 길가에 누운 사내'와 '웃자락을 당기는 젊은 아낙'의 무참한 현실과 오버랩된다. '갈등'의 상황이다. 하지만 시인은 그육망과 정투 같은 현실 너머 화해의 세계를 본다. '서로 의지하고 기대에만/온전히 설 수 있는 생'은 눈물 '그렇듯 보랏빛 환한 등꽃'과 같다는 풀이다.

이번 시집은 시를 다듬고, 또 다듬어가는 물리적

인 시간에 인생을 멀리 돌아온 연륜이 더해져 엮어진 시집이다. 세공하다 보니 개인사와 가족사를 넘나드는 굴곡진 삶의 회로에라도 맡 없는 결정이 돼 반질반질 윤이 날 정도라는 설명이다.

농로에서 함께 일하던 영감은 멀리서 달려오는 차를 보고 '할멈의 허리춤 찢싸게 낚아채/안으로 당기' ('가을 풍경')고, 한여름 무더위에 지쳐 잠든 가장의 짐은 새우등에 비유된다. 이를테면 '등 굽은 새우 소금 위에 올려놓고/균침 흘리며 살을 발라막던/여름날의 푸르른 밤' '계속되는 열대야에 지쳐/겨울에 웅크리고 잠들어버린/발갈게 익은 새우 굽은 등' ('새우') 말이다.

여기다 시간에 역사가 얹힐수록 서사의 폭도 깊고 넓어진다. 저자 세대들이 경험한 마을 공동체나 역사적 상처의 무늬가 기억의 회랑 가득 출렁 거린다.

장애선 시인은 전남 강진 출생으로 조선대 국문과와 전남대 대학원 국문과를 졸업, 1998년 '사람의 깊이'에 작품을 발표하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안과 밖' 오랜 기간 마주한 작은 생명들 기록

이소의 개인전 31일까지 포도나무 아트스페이스

이소의 작가 개인전이 지난 20일 개막, 오는 31일까지 포도나무 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린다. '밖-들-안'이라는 타이틀로 열고 있는 이번 전시는 우리가 익숙하게 구분해온 '안과 밖'의 경계를 다시 사유하며, 시선의 전환을 통해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한다.

이 작가는 오랜 시간 길 위에서 마주한 풀과 나무, 뜰에서 자라난 작은 생명들을 기록해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런 사진과 드로잉을 함께 선보이며, 작업의 시작점이자 시선의 원천을 공유한다.

특히 그는 식물의 성장점에 주목, 탄생과 소멸이 동시에 존재하는 삶의 흐름과 개별 존재가 가진 방향성을 탐구한다.

전시장 한쪽 벽면에는 작가가 평소 애용하던 사진과 드로잉이 함께 선보여 작업 과정과 기록의 의미를 드러낸다. 관객들은 이 과정을 통해 단순히 완성된 결과물이 아닌, 관계와 흔



전시 전경

적, 시선의 흐름을 마주하게 된다.

'밖-들-안'은 전시장 전체가 하나의 틀로 작동하며, 안과 밖, 작품과 공간이 서로를 가로지르며 순환하는 과정을 담아낸다. 관객들은 경계 흔들리는 지점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경험을 하게 될 전망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를 입니다.